

KEIGO STORY · 敬語のかたち

敬語は、 高さじゃなかった。

한국

日本

일본어는 자신 있어도, 상사 앞과 商談 자리의 존댓말은 결이 다르다 —
한국어와 일본어, 「높이는 방식」의 차이를 들여다본다.

도쿄에서 일하는 어느 한국인의, 존댓말 이야기 · 일곱 장면

WHAT 무엇을 읽나

같은 존댓말인데, 결이 다르다.

오늘 읽는 것 — 한국어와 일본어, 존댓말 「결」의 차이. 문법책이 아니라, 도쿄의 직장에서 겪는 실제 장면으로.

7

일곱 장면

상사와의 대화 · 商談의 실제 순간

4

경어의 갈래

尊敬·謙讓·丁寧·美化 — 경어의 지도

9+16

동사표 · 퀴즈

동사 9쌍 대응표 + 복습 16문

장면으로 겪고 → 지도로 정리하고 → 퀴즈로 확인한다.

WHY 왜 읽나

먼저, 이 장면부터.

거래처

「田中部長は、いらっしゃいますか？」

나

「부장님은…」 ——— 여기서, 멈칫.

문법도 単語도 틀리지 않았다. 그런데, 어딘가 어긋난다.

「왜 멈칫하는지」를 알면 — 멈칫은 사라진다. 그걸 위해 읽는다.

HOW

어떻게 달라지나

읽기 전과, 읽은 후.

읽기 전 — 한국식 직감



무조건, 높인다.

부장님은, 어디서나 부장님이니까.



읽은 후 — 일본식 감각



거리를, 맞춘다.

안(うち)인지 밖(そと)인지를 먼저 본다.

존댓말을 「높이는 기술」이 아니라 「거리를 재는 기술」로 다시 보게 된다 — 에필로그에서 이 한 줄로 돌아온다.

GOAL 오늘의 목표

목표는, 셋.

다 읽은 뒤 셋 모두에 ✓를 그을 수 있으면, 오늘은 성공.



일곱 장면의 표현을, 한국식 → 일본식으로 바꿔 말할 수 있다.

第1話~第7話 — 商談·상사와의 대화



敬語 네 갈래(尊敬·謙讓·丁寧·美化)를 스스로 구분할 수 있다.

경어의 지도 + 복습 퀴즈 ① 8문



자주 쓰는 동사 아홉 쌍의 尊敬語 ↔ 謙讓語를 짝지을 수 있다.

부록 동사표 + 복습 퀴즈 ② 8문

では、始めましょう。자, 첫 장면으로.

일본어는 자신 있었다. 그런데 존댓말은, 조금 달랐다.

PROLOGUE · 프롤로그

JLPT N2. 회의도 알아듣고 메일도 쓴다. 문법도 単語도 틀리지 않았다.

그런데 상사와 이야기할 때, 商談 자리에서, 한국어 존댓말의 감각을 그대로 옮기면 어딘가 미묘하게 어긋났다.
틀렸다가보다, 「결」이 달랐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애초에 「누구를, 언제 높이느냐」의 규칙이 다르다 — 그걸 알고 나니, 존댓말이 훨씬 편해졌다.

이전, 내가 직장에서 그 「결의 차이」를 하나씩 익혀 간 기록이다.

시작하기 전에 · 경어의 지도

「敬語」は、一つじゃない。

일본어 「敬語(けいご)」는 존댓말 전체를 부르는 큰 이름. 그 우산 아래, 성격이 다른 방이 넷 있다.

「敬語(けいご)」 = 존댓말 전체를 부르는 큰 이름 · 그 우산 아래 네 갈래

尊敬語 そんけいご

상대·윗사람의 동작을 「높인다」

예 · いらっしゃる · 召し上がる · ご覧になる · お見えになる

謙讓語 けんじょうご

「나」를 낮춰 상대를 높인다

예 · 伺う · 申す · いたす · 拝見する

丁寧語 ていねいご

「듣는 사람」에게 정중하게

예 · です · ます · ございます

美化語 びかご

말 자체를 곱게 다듬는다

예 · お水 · ご飯 · お店

※ 文化庁 「敬語の指針」(2007)는 5분류로 세분한다 — 尊敬語 / 謙讓語 I (伺う·동작이 향하는 상대까지 높임) / 謙讓語 II = 丁重語(参る·듣는 이에게 정중히 낮춤) / 丁寧語 / 美化語. N2에선 위 큰 갈래로 충분.

시작하기 전에 · 경어의 지도

한국어로는, 어디에 해당할까?

같은 「높임」이라도 축이 다르다. 일본의 네 종류를 한국어에 겹쳐 보면 —

尊敬語

そんけいご



주체 높임

-(으)시- · 계시다 · 잡수시다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謙讓語

けんじょうご



겸양 · 객체 높임

여쭙다 · 뵈다 · 드리다 · 모시다

제가 부장님을 뵈러 갑니다.

丁寧語

ていねいご



상대 높임

-습니다 / -어요 (합쇼체·해요체)

이것은 자료입니다.

美化語

びかご



대응이 약함

진지 · 말씀 등 일부만 미화

(한국어엔 딱 맞는 짝이 적다)

そして

한국어 존댓말이 주로 「-시-」와 「-습니다」 두 축으로 돈다면, 일본어는 올리는 말(尊敬)·낮추는 말(謙讓)·정중한 말(丁寧)이 저마다 독립된 어휘로서 있다. 게다가 이 위에 「지금 누구 앞이냐(うち/そと)」가 얹혀 방향까지 뒤집힌다. — 그 지도를 손에 들고, 이제 일곱 장면으로.

01 「弊社の田中」と呼んだ日

敬語：謙讓語(겸양어)

거래처와의 商談. 상대가 물었다. 「田中部長はいらっしゃいますか?」 하필 부장은 자리에 없다. 나는 「부장님은…」 하고 입을 열려다 멈췄다.

第1話・商談の席で

한국어 직감대로라면



部長はいらっしゃいません。

부장은 나보다 윗사람 → 어디서든 높인다 (한국=절대경어)

일본은 이렇게 말한다



田中は席を外しております。

たなかは せきを はずして おります

商談에선 「弊社の田中」 — 내 상사도 「우리 회사(うち)」라 밖엔 낮춘다.
「部長」「様」도 떼나.

왜

일본 경어는 「상대경어」 — 지금 마주한 상대가 기준. 내 부장이라도 거래처(そと) 앞에선 「우리 편」이라 낮춘다. ※ 「部長様」는 직함+様 이중경칭이라 오히려 실례. 한국은 「절대경어」 — 부장님은 어디서나 부장님.

02 「見る」に、敬語が二つ

敬語：尊敬語 + 謙讓語

새 자료가 왔다. 부장에게 확인부터. 「부장님, 이거 보셨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 일본어는 「보다」 하나에 높임말이 들어있다.

第2話 · 上司との会話

한국어 직감대로라면



部長は見ましたか?

한국어는 「-시-」 한 축이면 끝 → 보셨어요 / 봤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말한다



ご覧になりましたか?

ごらんになりましたか

내 쪽은 낮추는 말 → 「まだ拝見しておりません(아직 못 봤습니다)」. 상대는 올리는 말, 나는 낮추는 말이 아예 다른 단어.

왜

일본어는 상대를 올리는 말(尊敬語)과 나를 낮추는 말(謙讓語)이 서로 다른 단어: いらっしゃる↔伺う, 召し上がる↔いただく, おっしゃる↔申す, ご存知だ↔存じ上げる(存じる). 한국어도 겸양어(여쭙다·묻다·드리다)가 있지만, 대부분 「-시-」 한 축으로 처리한다.

03 「수고하셨습니다」の落とし穴

敬語 : 丁寧語(정중어)

회의가 끝나고 부장이 먼저 일어섰다. 한국이라면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했을 텐데 — 그대로 옮기려는 나를 선배가 눈짓으로 막았다.

第3話 · ねぎらいの一言

한국어 직감대로라면



ご苦労さまでした。

「수고=ご苦労」로 직역 →윗사람에겐 실례

일본은 이렇게 말한다



お疲れさまです。

おつかれさま です

윗사람에게도 무난한 건 「お疲れさま」. 「ご苦労さま」는 관례상 윗사람에겐 피한다(위→아래 느낌).

왜

방향이 반전된다. 일본은 「お疲れさま」를 아랫→윗사람에도 쓴다. 반대로 한국은 「수고하셨습니다」를 윗사람에게 쓰는 걸 꺼려(受苦=고통을 평가하는 인상) 「고생 많으셨습니다/감사합니다」로 바꾼다. ※ご苦労=위→아래 규칙은 정착된 관례지 절대 규칙은 아니다.

04 「させていただく」の重ね着

敬語：謙讓語(겸양어)

商談에서 내가 발표할 차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 「説明します」라고 하려다, 주위를 보니 다들 한 겹을 더 입고 있었다.

第4話・プレゼンの前で

한국어 직감대로라면



私が説明します。

한국어 「설명하겠습니다」면 충분 (의지 표현)

일본은 이렇게 말한다



ご説明させていただきます。

ごせつめい させて いただきます

「させてもらう(허락받아 한다)」의 겸양 = 「상대의 허가로 제가 은혜를 입어 합니다」. 한국어엔 이 이중 낮춤 구조가 없다.

왜

「させていただく」는 ‘허가+수혜’를 문법으로 굳힌 겸양. 단 조건(상대의 허가·내 이익) 없이 남발하면 過剰敬語로 장황해진다 (拝見させていただく 같은 이중 겹침 주의). 한국어는 「~하겠습니다」로 옮길 뿐, 이 구조 자체가 없다.

05 すみませんの、その先

敬語 : 丁寧語(정중어)

거래처에 자료를 하나 더 부탁해야 했다. 「すみません、これも…」라고 하려다, 商談 자리엔 조금 다른 말이 오간다는 걸 느꼈다.

第5話 · お願いのしかた

한국어 직감대로라면



すみませんが…

한국어는 죄송/감사/저기요로 나뉘는데, すみません 하나에 다 말기려 함

일본은 이렇게 말한다



恐れ入りますが…

おそれいりますが

商談·거래처엔 의뢰=「恐れ入りますが」, 사과=「申し訳ございません」으로 갈라 쓴다.

왜

「すみません」은 사과·감사·부름을 혼자 다 하는 만능어(어원 「気が済まない」). 하지만 격식 商談에선 「恐れ入りますが (황송합니다만)」·「申し訳ございません」으로 분화한다. 한국어는 애초에 죄송/감사/저기요로 나뉘어 있어, 「하나로 다 된다」가 오히려 낯설다.

06 正体不明の、よろしく

敬語 : 謙讓語(겸양어)

商談 시작. 명함을 주고받고 모두가 「よろしく申し上げます」 라고 했다. 무엇을 부탁한다는 걸까 — 나는 순간 멈칫했다.

第6話 · 名刺交換

한국어 직감대로라면



처음 뵙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한국어는 장면마다 인사가 다르다 (첫 만남·메일 끝...)

일본은 이렇게 말한다



よろしく申し上げます。

よろしく おねがい します

첫 만남도·회의 시작도·메일 끝도 이 한 구절. 「무엇을」 은 말하지 않고 관계·협조를 통째로 부탁한다.

왜

「よろしく申し上げます」 는 첫 만남·업무 시작·메일 맺음·협조 요청을 한 구절로 덮는다. 한국어 「잘 부탁드립니다」 는 폭이 좁아 첫 만남엔 「반갑습니다」, 메일 끝엔 「감사합니다」 로 갈린다. 商談 뒤엔 「今後ともよろしく申し上げます」 로 관계를 잇는다.

敬語 : 謙讓語(겸양어)

07 「検討します」は、たぶんノー

내가 제안을 냈다. 상대는 웃으며 「前向きに検討させていただきます」라고 했다. 「좋게 검토한다니 됐다」며 기뻐했지만 — 나중에 알았다. 그건 대개 「거절」이었다.

第7話・商談のゆくえ

한국어 직감대로라면



ちょっと難しいですね。

한국은 거절이면 「어렵겠다」고 어느 정도는 말해준다

일본은 이렇게 말한다



検討させていただきます。

けんとう させて いただきます

뒷말을 비운 「ちょっと…」, 「検討します」가 사실상 거절. 明示的 「だめです」를 강하게 피한다.

왜

일본어는 「말하지 않음」으로 거절한다(言ひさし). 「前向きに検討します」「それはちょっと…」는 상대 체면을 세우는 완곡 거절의 관용. 한국어도 완곡하지만, 일본은 「いいえ/できません」을 훨씬 강하게 피해 침묵·말끝 흐리기까지 동원한다.

칼럼 · 지나친 존댓말

「やりすぎ敬語」 — 過剰敬語(과잉 경어)

경어는 겹칠수록 정중해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어색하고 불성실하게 들린다. 흥미롭게도 한·일 모두 「과공(過恭)」의 함정이 있는데, 걸려 넘어지는 자리가 서로 다르다.

일본 — 二重敬語(이중경어)

같은 높임을 두 번 겹치는 실수

- | | |
|-------------|-------------------|
| × ご覧になられる | 尊敬(ご覧になる)+られる |
| ○ ご覧になる | |
| × お召し上がりになる | 이미 尊敬인데 お~になる 덧붙임 |
| ○ 召し上がる | |
| × 拝見させていただく | 謙讓을 두 번 겹침 |
| ○ 拝見します | |
| × 部長様 | 役職(=敬称)+様 이중경칭 |
| ○ 田中部長 / 部長 | |
| × 1万円になります | 접객경어(バイト敬語) |
| ○ 1万円でございます | |

한국 — 사물 높임(과공)

사람 아닌 것에 -시-를 붙이는 실수

- | | |
|-------------|--------------|
| × 커피 나오셨습니다 | 사물엔 -시- 안 붙임 |
| ○ 커피 나왔습니다 | |
| × 만 원이십니다 | 가격을 높이지 않음 |
| ○ 만 원입니다 | |
| × 품질이십니다 | 상품 높임 오류 |
| ○ 품질입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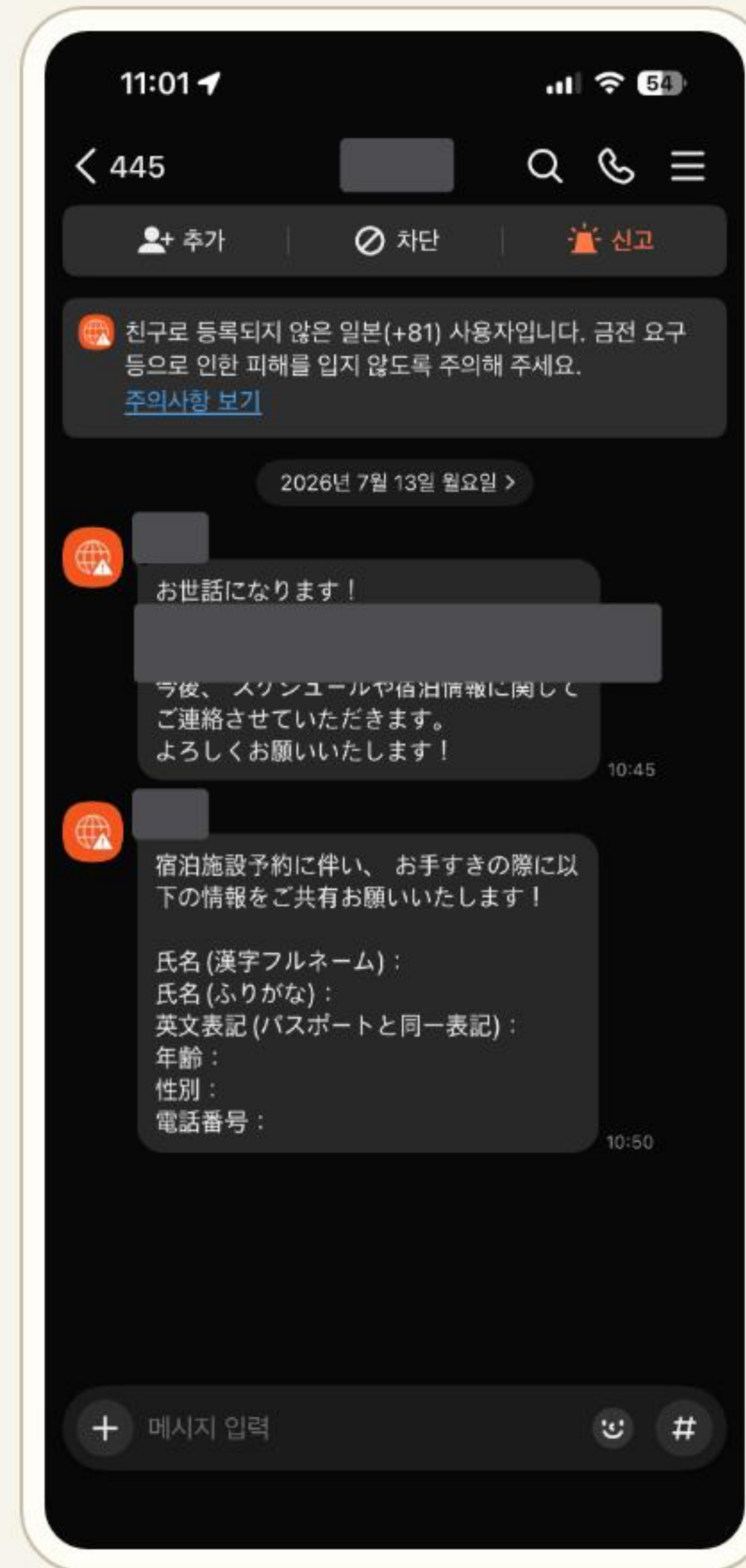
정리

文化庁도 二重敬語는 원칙적으로 부적절로 본다 — 단 「お伺いする」「お召し上がりください」처럼 관용으로 굳은 예외는 있다. 앞서 나온 「させていただく」「部長様」이 바로 이 과잉의 사례. 정중함은 「한 번, 정확히」이지, 겹친다고 올라가지 않는다.

번외 · 실물로 읽는 경어

リアルなメッセージで、敬語を読む

교과서 밖에서도 비즈니스 경어는 이렇게 도착한다. 어느 「NPO」에서 실제로 온 메시지를 한 마디씩 뜯어보면 — 第4話·第6話が 그대로 나온다.



LINE · 실제 수신 메시지

お世話になります

定番の挨拶

면식이 없어도 쓰는 비즈니스의 첫 인사. 일본어 메일·라인은 거의 이 한마디로 시작한다 — 「늘 신세 지고 있습니다」에 가까운 상투구.

ご連絡させていただきます

第4話 · させていただく

연락은 상대 허가가 필요 없어 원래는 「ご連絡いたします」로 충분. 현실에선 이 살짝 과한 형태가 오히려 정번이다 — 第4話에서 본 구조 그대로.

お手すきの際に

第5話 · 쿠션어

「시간 여유 있으실 때」를 정중하게. 부탁을 부드럽게 감싸는 앞말로, 「恐れ入りますが」와 같은 역할.

ご共有お願いいたします / 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第6話 · 만능의 맺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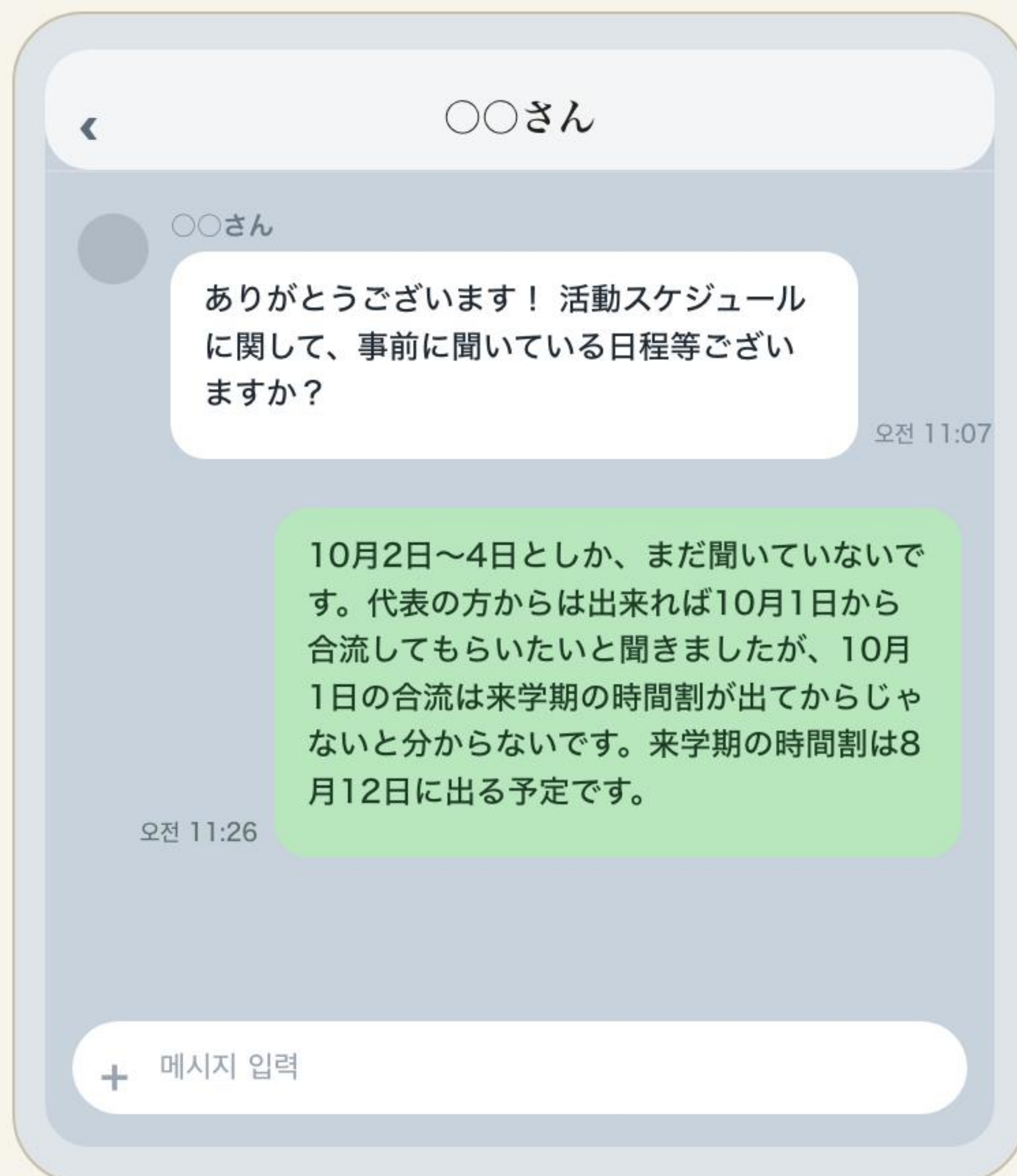
「～お願いします」로 용건을 맺는다. 무엇을, 은 말하지 않고 협조를 통째로 부탁하는 일본어의 정형.

△ 단, 이건 「+81·미등록의 낯선 상대」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시지다. 경어가 완벽해도 신용의 증거는 아니다 — 여권 이름·나이·전화번호 같은 요구엔 응하지 말 것.

번외 · 返信を整える ① (Before → After)

同じ内容を、ビジネス敬語に

실제로 받은 「일정」 질문에 답하는 장면. 왼쪽은 진짜 주고받은 대화(내 초안 그대로), 오른쪽이 그걸 담당자용 정중체로 다듬은 답장이다.



LINE 실제 대화 재현 · 얼굴·이름·단체명은 가림

NPO 담당자에게 (정중체)

ご連絡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現時点では、10月2日~4日とだけ伺っております。10月1日からの合流は、来学期の時間割が出てからでないと判断が付きません。時間割は8月12日に発表予定ですので、確定し次第、改めてご連絡いたしま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 ~としか聞いていないです

○ ~とだけ伺っております

聞く의 겸양 伺う로, 「~です」로 끝내는 구어보다 담당자엔 이쪽이 자연스럽다.

△ 分かりません

○ 判断が付きません

"아직 판단이 안 선다"를 정중하게, 특 던지는 인상을 없앤다.

△ (댓음말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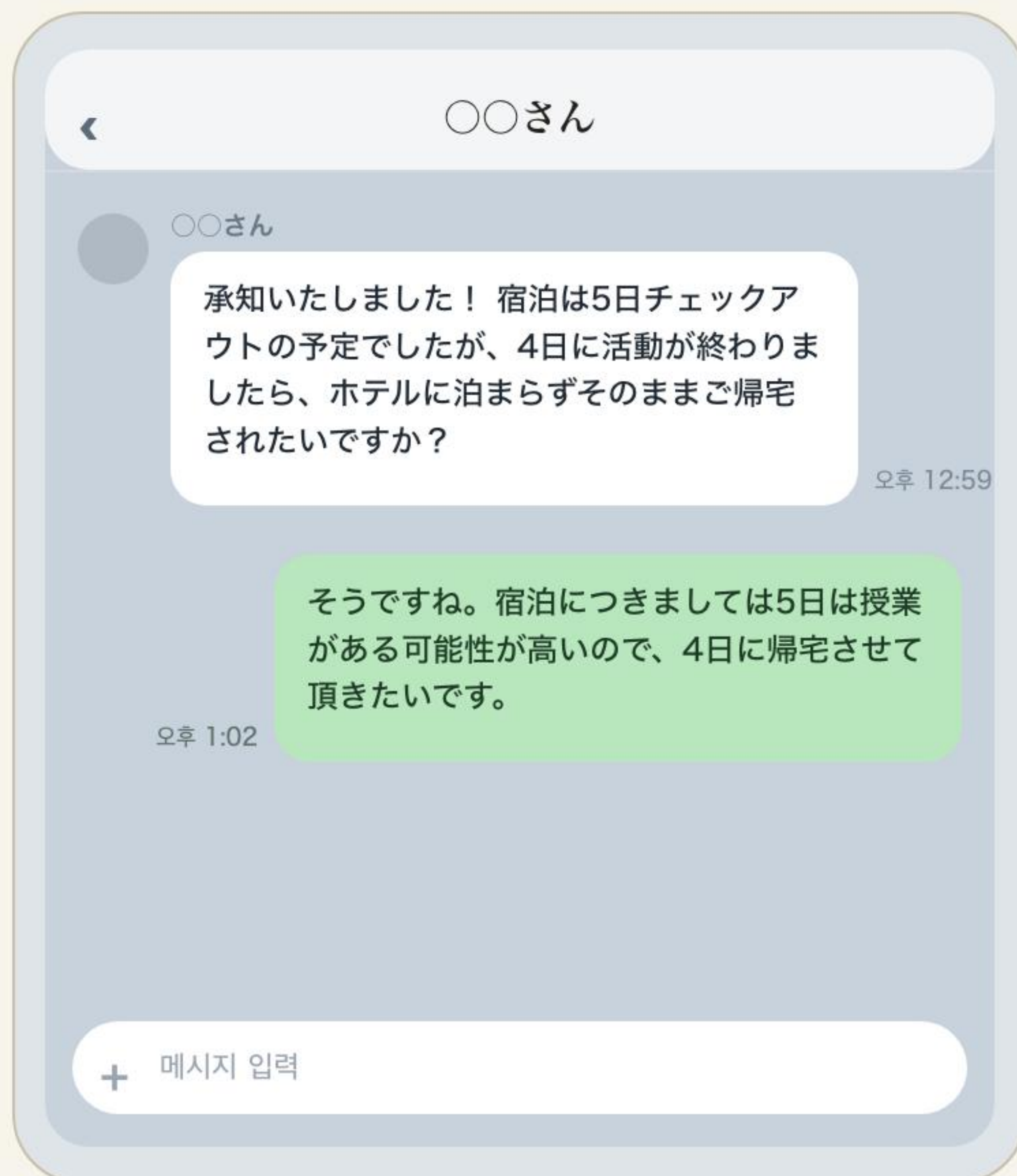
○ 確定し次第、改めてご連絡いたします

상대가 궁금한 「언제 확정?」에 공을 넘기는 마무리를 더한다.

번외 · 返信を整える ② (Before → After)

もう一例 — 宿泊の返信を、敬語に

실제로 받은 「 숙박·귀가」 확인 메시지에 답하는 장면. 왼쪽은 진짜 주고받은 대화(내 초안 그대로), 오른쪽이 그걸 담당자용으로 다듬은 답장이다.



LINE 실제 대화 재현 · 얼굴·이름·단체명은 가림

NPO 담당자에게 (정중체)

ご確認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宿泊につきましては、5日に授業が入る可能性が高いため、4日に帰宅させていただければと存じます。お手数をおかけしますが、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 **そうですね。**○ **ご確認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혼잣말 톤의 「그렇네요」 → 상대가 확인해 준 것에 대한 인사로 여는 게 정석.

△ **授業がある / ので**○ **授業が入る / ため**

일정·예정엔 「入る」가 자연스럽고, ので보다 ため가 문어·격식에 어울린다.

△ **帰宅させて頂きたいです**○ **帰宅させていただければと存じます**

직접적 희망 → 「～해 주시면」의 겸양·완곡으로. 끝에 お手数～ 완충 한 줄도 더한다.

경어는 「높이」가 아니라 「거리」였다.

EPILOGUE · 에필로그

한국어의 존댓말은 「누가 윗사람인가」로 정해진다. 부장은 회의실에서도, 거래처 앞에서도 부장님이다. 절대적이다. (직장에서 압존법을 쓰지 않는 것도 같은 결 — 부장 앞에서도 과장님을 높인다.)

일본어의 경어는 「지금 내가 누구 편인가」로 정해진다. 같은 부장을 사내에선 「部長」로 높이고, 商談 상대 앞에선 「弊社の田中」로 낮춘다. 「うち(안)」와 「そと(밖)」의 선이 매 순간 움직인다.

내 상사도, 우리 회사도, 심지어 자기 가족도 — 밖에선 낮추고 상대를 세운다. 그래서 일본어 존댓말은 「높이는 기술」이 아니라 「거리를 맞추는 기술」이었다.

높이려 애쓰기 전에, 지금 내가 「우치」인지 「소토」인지를 먼저 보자.

부록 · 동사 경어 대응표

動詞の敬語、ひと目で

「상대를 높이는 말(尊敬語)」과 「나를 낮추는 말(謙讓語)」은 동사마다 짝이 있다. 자주 쓰는 것부터.

원형(기본형)	尊敬語 — 상대를 높임	謙讓語 — 나를 낮춤
言う	おっしゃる	申す・申し上げる
見る	ご覧になる	拝見する
行く・来る	いらっしゃる・お見えになる	伺う・参る
いる	いらっしゃる	おる
食べる・飲む	召し上がる	いただく
する	なさる	いたす
知る・思う	ご存知だ	存じる・存じ上げる
会う	お会いになる	お目にかかる
もらう	—	いただく・頂戴する

정리 尊敬語 = 상대의 동작을 올림 / 謙讓語 = 내 동작을 낮춰 상대를 올림. 「もらう」처럼 尊敬語 짝이 없고 謙讓語만 있는 것도 있다.

부록 · 회사를 부르는 말

御社・貴社・弊社、どう違う？

商談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세 단어. 갈림길은 둘 — 「누구의 회사인가」(うち/そと), 그리고 「말인가, 글인가」.

相手の会社 — 높인다

そと(밖)의 회사 · 尊敬 계열

御社 おんしゃ

전화 · 면접 · 商談 자리 — 입으로는 이쪽.

貴社 きしゃ

메일 · 이력서 · 견적서 — 문서에는 이쪽.

※ きしゃ는 記者·汽車·帰社와 소리가 같아서, 말로는 御社를 쓴다.

말할 때

글로 쓸 때

自分の会社 — 낮춘다

うち(안)의 회사 · 謙讓 계열

弊社 へいしゃ

거래처 앞에서는 말·글 모두 — 낮춰서 상대를 높인다.

当社 とうしゃ

사내 문서·자사 소개, 낮추지 않을 자리(클레임 대응 등).

※ 구어에서 「저희」라고 할 때는 私ども(わたくしども).

겸양 · 기본값

중립

業種가 바뀌면 — 社 자리에 業種 글자

업종	상대·말할 때	상대·글	내 쪽·겸양	내 쪽·중립
会社	御社 おんしゃ	貴社 きしゃ	弊社 へいしゃ	当社 とうしゃ
銀行	御行 おんこう	貴行 きこう	弊行 へいこう	当行 とうこう
店 (개인)	— ※	貴店 きてん	弊社 へいてん	当店 とうてん

銀行은 「社→行」만 바뀌 会社와 완전 평행(전부 ~こう). ※店は 御店(おんてん) 구어형이 거의 없어, 상대 가게는 そちら·가게이름+さん으로. 체인·법인이면 貴店 아닌 貴社. 학교→貴校(きこう)도 글말.

왜

한국어 「귀사·폐사」는 말과 글을 가리지 않는다. 일본어는 같은 상대라도 매체(말/글)가 단어를 고른다 — 第1話의 うち/そと에 축이 하나 더 얹히는 셈.
※ 「御社様」는 과잉 — 御社에 이미 높임이 들어 있다.

부록 · 「알겠습니다」의 온도

「わかりました」だけじゃない

같은 「알겠습니다」도 일본어는 상대에 따라 어휘를 바꾼다. 위로 갈수록 정중하다.

かしこまりました

かしこまりました

→ 고객 · 거래처 · 손윗사람

가장 정중 —接客·비즈니스 최상위

●●●●

정중도

承知しました / 承知いたしました

しょうちしました

→ 상사 · 거래처 (비즈니스 표준)

いたしました 쪽이 더 정중(겸양)

●●●○

정중도

わかりました

わかりました

→ 동료 · 가벼운 자리

정중하지만 윗사람에겐 다소 가벼움

●●○○

정중도

了解しました / 了解です

りょうかいしました

→ 동료 · 후배

거래처·윗사람에겐 피한다

●○○○

정중도

한국어 · 한국어는 대개 「알겠습니다」 하나로(존댓말은 -습니다). 일본어처럼 상대별로 어휘 자체를 바꾸지는 않는다.

정리

かしこまりました·承知いたしました가 상위, わかりました·了解는 아래로 갈수록 캐주얼. 商談·거래처엔 「かしこまりました / 承知いたしました」, 사내 동료엔 「わかりました」가 자연스럽다.

부록 · 복습 퀴즈 ①

이 경어는 어느 카테고리?

다음 표현이 尊敬語 · 謙讓語 · 丁寧語 · 美化語 중 무엇인지 적어 보세요. (정답은 뒤 페이지에)

尊敬語(상대 높임) · 謙讓語(나를 낮춤) · 丁寧語(정중) · 美化語(곱게)

Q1

召し上がる

→

Q2

伺う

→

Q3

お店

→

Q4

ございます

→

Q5

おっしゃる

→

Q6

拝見する

→

Q7

お見えになる

→

Q8

いたす

→

부록 · 복습 퀴즈 ②

올바른 경어를 고르세요

직장·商談 상황입니다. 더 자연스러운 쪽은? (정답·해설은 뒤 페이지에)

Q1 거래처에 자기 부장의 부재를 알릴 때

- ① 田中は席を外しております
- ② 部長はいらっしゃいません

Q3 회의 후, 먼저 일어난 부장에게

- ① お疲れさまです
- ② ご苦労さまでした

Q5 「部長様」라고 부르는 것은?

- ① 틀리다
- ② 올바르다

Q7 한국어 「커피 나오셨습니다」 는?

- ① 과잉(사물존칭)
- ② 정중한 표현

Q9 이력서에 지원 회사를 적을 때

- ① 御社
- ② 貴社

Q2 부장에게 「이 자료 보셨어요?」

- ① 見ましたか
- ② ご覧になりましたか

Q4 다음 중 二重敬語(과잉)은?

- ① ご覧になる
- ② ご覧になられる

Q6 商談의 「前向きに検討します」 속뜻

- ① 적극 수용
- ② 완곡한 거절

Q8 남에게 자기 어머니 말을 전할 때

- ① 母がおっしゃいました
- ② 母が申しておりました

Q10 은행 면접에서 지원 은행을 말로 부를 때

- ① 貴行
- ② 御行

부록 · 정답 ①

정답 ① — 카테고리 분류

Q1 召し上がる

食べる·飲む의 존경

尊敬語

Q2 伺う

聞く·訪ねる의 겸양

謙讓語

Q3 お店

お+명사, 말을 곱게

美化語

Q4 ございます

ある의 정중

丁寧語

Q5 おっしゃる

言う의 존경

尊敬語

Q6 拝見する

見る의 겸양

謙讓語

Q7 お見えになる

来る의 존경(오시다)

尊敬語

Q8 いたす

する의 겸양

謙讓語

부록 · 정답 ②

정답 ② — 상황·정오 (해설)

Q1 정답 ① 田中は席を外しております

자기 쪽(うち)은 밖에 낮춘다

Q3 정답 ① お疲れさまです

고苦勞는 윗사람에겐 관례상 회피

Q5 정답 ① 틀리다

役職(部長)이 이미 敬称

Q7 정답 ① 과잉(사물존칭)

사물엔 -시- 안 붙임

Q9 정답 ② 貴社

글(이력서·메일)=貴社 / 말(면접)=御社

Q2 정답 ② ご覧になりましたか

상대의 동작 → 尊敬語

Q4 정답 ② ご覧になられる

尊敬을 두 번 겹침

Q6 정답 ② 완곡한 거절

言いさし · 완곡 거절

Q8 정답 ② 母が申しておりました

자기 가족(うち)은 낮춤

Q10 정답 ② 御行

말=御行(おんこう) / 貴行은 글말. 銀行은 会社와 평행